



학생독립운동 81주년 시민건강걷기대회

학생독립운동 81주년 기념 시민건강걷기대회가 7일 오전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무시민공원 일원에서 열렸다. 학생·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는 CNN21방송, 행복나눔실천연대, 서중·일고 제55회 동창회가 마련했다.

강진·곡성에 공립 중·고 대안학교

전남교육청 첫 설립

전남지역에서 학교 부작을 학생들의 대안교육을 맡을 공립 중·고 대안학교가 처음으로 문을 연다.

전남도교육청은 7일 "학교 부작을 등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대안교육을 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공립 대안학교를 각각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이 설립해 운영 중인 대안학교는 있지만 국가기관이 세운 공립 형태는 광주·전남에서 처음이다.

대안중학교는 127억원이 투입돼 강진 옛 군동중학교 부지에 신축, 2013년 3월 개교한다. 곡성 옛 목사동 중을 증·개축(사업비 93억원)하는 고교는 2012년 3월 문을 연다.

중·고교 모두 총 9학급 규모로 이

가운데 3학급은 일선 학교 등에서 한 시적으로 위탁받아 교육하는 이른바 가변(可變)학급으로 운영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석면피해 구제 신청 월말부터 사전 접수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내년 1월 시행되는 석면피해구제 제도에 앞서 이달 말부터 피해구제 신청을 미리 받는다

대상 질병은 원발성(原發性) 악성 중피종과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 3종이며, 악성중피종과 폐암 환자는 5년간 요양급여(의료비)와 생활수당(월 90만6000원)을 받을 수 있다. 문의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 (032-590-5032, 5034, 5035).

/연합뉴스

수능 D-10 박연종 전국진학지도협 대표가 추천하는 마무리 전략

“수능 시간표에 맞춰 생활을”

틀린 문제 반복해 풀어 약점 보완에 중점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18일)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수험생들은 아는 문제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마무리에 힘써야 할 때다. 중앙감 때문에 공부시간을 무리하게 늘리는 것보다 지금까지의 학습패턴을 유지하며 평상심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마무리는 교과서, 기출문제는 9월 수능 모의평가를 바탕으로 기출문제를 익히고, 최종 마무리는 교과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로 도표나 수식표 등을 중심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다.

현 시점에 새 참고서나 책을 잡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중앙감이나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손때 묻은 문제집과 기출문제를 돌아보며 틀린 문제를 수차례 반복해 풀면서 약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어야 한다.

다만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비교적 단기간에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영역 반영비율이 높은 대학 및 학과에 지원했다면 문제풀이보다 관련 교과서를 세 번 정도 정독하면서 개념을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새벽공부나 낮잠은 금물 =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했으니 잘 치를 수 있다' '아는 것만 풀어도 좋은 성적이 나온다'는 긍정적 마인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수험생들은 긴장을 풀고 평상심을 유지해야 한다. 자칫 무리하게 공부 시간을 늘리는 등 욕심을 부리면 수면장애 등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매일 리허설이란 느낌을 갖고 하루하루 수능 시간표에 맞춰 생활하면서 몸 상태를 가다듬는 게 좋다. 새벽 공부는 피해야 한다. 몸에 무리를 줘서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데다 자칫 활절기 감기에 걸릴 경우 최악의 상황을 몰고 올 수 있다.

오후 낮잠 역시 경계대상이다.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을 잘 못 이루거나, 수능 당일 외국어 영역 시험시간을 전후해 집중력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평소 아침을 걸렀다면 이 기간만이라도 간단한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나주 녹야원에 부조 본존불 탕화

순동 부조 형식 첫 제작

부처 첫 설법 장면 조각

'탕화'(檀畵)는 불·보살·성현 등을 그린 그림으로 보통 벽에 거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순동(純銅) 부조를 본존불로 모신 새로운 형식의 본존 탕화가 등장해 화제다.

나주시 다도면에 자리잡은 대한 불교조계종 녹야원(주지 효공 스님)은 7일 무설전 본존 탕화 점안 및 봉안법회를 갖고 새로운 형식의 순동 본존 탕화를 일만에 공개했다. 한국에는 목각 부조 형식의 탕화가 더러 있지만 순동 부조 형식의 탕화가 본존 탕화로 모셔지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완수(68) 간송미술관 연구실장의 주도로 제작된 이 탕화는 가로 3m, 세로 1.6m 크기의 순동 부조를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 첫 설법을 했던 녹야원의 정경과 다섯 제자, 보살 등을 조각한 작품이다. 새로운 형식의 편안하고 자연스



나주 녹야원 무설전에 최근 순동 부조로 만든 새로운 형식의 탕화가 봉안됐다.

러운 모습의 본존불 탕화를 구상해온 효공 스님은 최 실장에게 이런 뜻을 타진했고, 최 실장은 2년여의 자료조사와 모형도 제작, 수정 작업을 거쳐 완성하게 됐다.

효공 스님은 "사부대중의 노력으로 무설전 내에 새로운 형식의

부조 탕화를 걸게 됐다"며 "지혜로운 눈빛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자비로운 미소와 손길로 보살피는 부처님의 품안에 모든 중생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61-337-2074.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오늘 날씨 (Today's Weather) section including a map of Korea, temperature forecasts for various cities, and a 7-day weather outlook.

강풍... 반짝 추위

주말·휴일 짙은 안개 항공기 결항·여객선 통제 잇따라

지난 주말과 휴일 내내 하늘을 뒤덮은 짙은 안개는 겉히지던 8일 오전에도 곳곳에 박무 형태로 남아있어 운전자들의 교통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7일 광주지방기상청은 "최근 3일간 서해안에서 다소 습한 공기가 유입된 상태에서 새벽에 복사냉각으로 기온이 내려가 내륙지방에 안개 끼는 곳이 많았다"며 "8일 오후에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 박무는 사라지지만 반짝 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다.

보통 안개는 새벽이나 아침에 짙게 끼었다가 일출 후 기온이 오르면서 걷히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대기 이동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상의 습한 공기가 많이 유입돼 한낮에도 사라지지 않고 박마나 연무 형태로 남았다고 기상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5일부터 7일까지 광주발 김포행 오전 7시~7시55분 항공기와 김포발 광주행 오전 7시10분~8시25분 항공기 등 12편이 서해안과 내륙지방에 낀 짙은 안개의 영향으로 잇따라 결항됐다.

또 서남해안 지역에 짙게 낀 안개로 목포항을 출발하는 14개 항로 24척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돼 여객선을 이용하려던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K Card (하나SK카드) featuring Touch 1 Card and various services.

Large advertisement for Hana Travel (하나투어) featuring travel packages to Shanghai, Beijing, and Hong Kong/Macau, along with a concert by Kim Su-hee.